

## 청소년의 성지식과 성가치관 및 성관심간의 관계

###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exual Knowledge and their Sexual Values and Interests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조 교수 민 하 영  
 천안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전임강사 이 영 미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 교수 김 경 화

Dept. of Child, Catholic Univ. of DaeGu  
*Assistant Professor : Min, Ha-Yeoung*  
 Division of Social Welfare, Cheonan University  
*Lecturer : Lee, Young-Mi*  
 Division of Social Welfare, Catholic Univ. of DaeGu  
*Associate Professor : Kim, Kyong-Hwa*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논의 |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xual knowledge of adolescents and their sexual values and interests with regards to gender and grade. The case subjects were 272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eoungbok 154 boys and 118 girls, who completed the study questionnaire. Statistical techniques used for the investigation were crosstabs, t-test, Pearson's partial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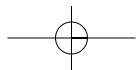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gender and grade differences in the adolescents' sexual knowledge and their sexual values and interests.

(2) The adolescents' sexual knowledg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ir own sexual values and interests.

(3) The adolescents' sexual interests were a stronger predictor of sexual knowledge than sexual values, gender or grade.

**주제어(Key Words):** 청소년 성지식(adolescent's sexual knowledge), 청소년 성가치관(adolescent's sexual values), 청소년 성관심(adolescent's sexual interest)



## 1. 서론

IT 강국으로 세계 3위의 인터넷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국가인 만큼 우리 사회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하게 제공되고 유포되는 과장되고 왜곡된 성문화에 접근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인터넷을 통한 용이한 성 접근성 뿐 아니라 점증하는 성 개방성 역시 청소년의 성문제를 외면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수위까지 심화시키고 있다. “섹시하다”라는 표현이 청소년들에게 칭찬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화적 코드(동아일보, 2005)까지 고려해 본다면 성은 더 이상 성인들만의 문제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청소년의 성적 경험이 증가하고 미혼모가 점증하고 있는 지금의 사회적 현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성을 외면하거나 부인했던 과거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인정하고 수용하는 적극적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공식적인 청소년 성교육은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2005)는 최근 바른 성지식과 성윤리 의식을 가진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10시간 내외의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치는 다양한 유형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여과 없이 쏟아지는 왜곡된 성문화로부터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기반 성교육(school-based sexual education)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 사회에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도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학교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교육에서 우선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바른 성지식과 성윤리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바른 성지식 획득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성지식에 대한 교육이 성가치관이나 성태도에 대한 교육보다 학교 현장에서 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김혜원, 이해경, 2000)과 함께, 성교육 관련 프로그램(SIECUS, 2004) 대부분이 사춘기에 나타나는 2차 성징의 발달이나 신체적, 생리적 변화 및 임신과 피임 또는 성병과 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성지식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확인될 수 있다. 성지식이 이처럼 성교육안에서 보다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것은 올바른 성지식으로부터 건강한 성(sexuality)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지고 있는 성지식이 올바르고 정확할 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과장되고 왜곡된 성정보는 더 이상 실효성 있는 정보로서 기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올바른 성지식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건강한 성을 스스로 추구할 수 있는 잠재적 힘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성지식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올바른 성지식을 청소년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선행연구에서 찾아 보는 것은 쉽지 않다. 청소년 성관련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성교육의 실태(최혜숙, 강순자, 여성희, 2004) 및 성교육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김선정, 문인옥, 2004; 박효미, 임미영, 2003; 송정아, 최혜영, 1999; 이길자, 정은자, 2001; 정금희, 김신정, 양순옥, 2003)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성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되었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성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는 성교육 프로그램 학교 현장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는 성지식이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확신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올바른 성지식 획득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성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 관계 규명 노력(김신정, 양순옥, 2004)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성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 관계 규명이 청소년 성교육의 효용성을 높이거나 다양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성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변인간 관계 규명 연구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 획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청소년의 성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고 변인간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성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우선 성가치관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성가치관과 성지식간 관계 규명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성태도와 성지식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하는 선행연구(김선정 외 1인, 2004; 김신정 외 1인, 2004; 전경숙, 이효영, 이선자, 2004)를 고려해 보면, 성태도의 중심근원으로써 성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가치관(민하영, 김경화, 2005)은 충분히 성지식과 유의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성지식과 성태도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언급할 뿐 아니라 성지식이 높을 때 성태도가 보다 개방적이며 평등적이라 지적하고 있다(김선정 외 1인, 2004; Kelly, Morgan-Kidd, Champion, & Wood, 2003). 즉 성지식이 성태도(박효미, 임미영, 2003; 정금희 외 2인, 2003)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이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과 달리 전경숙 외 2인(2004)은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지식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면서 성태도가 성지식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이라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성지식과 성태도가 상호작용적 쌍방향 관계에 있다는 사실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성지식과 성태도간 인과관계의 방향성에 관해선 일관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지식보다 성태도가

보다 안정된 특성(전경숙 등, 2004)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성태도는 성지식에 의해 영향받는 종속변인이기 보다 성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성태도와 혼용되어 사용될 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가치관(김수경, 2005) 역시 성지식의 독립변인으로 기능하면서 성지식과 유의한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성가치관을 선정하고, 성지식과 성가치관의 관계 및 성지식에 미치는 성가치관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청소년의 성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을 고려할 수 있다. 2차 성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 중고등학생은 생애 어떤 시기보다 높은 성적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는 시기이며 성적 충동에 자극 받기 쉬운 시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성적 관심이나 호기심은 성적 지식을 획득하도록 하는 동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까지 성지식의 관련 변인으로 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관심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없으나, 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관심이 성지식 차이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하는 연구결과가 있다. 성관련 질문이 성에 대한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성관련 질문 경험에 있는 중학생의 성지식이 질문 경험이 없는 중학생의 성지식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김신정, 양순옥, 2004)는 성관심이 성지식과 관련 있음을 함의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함께 지식 획득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관심과 흥미임(조연순, 체제숙, 백은주, 임현화, 2004; Petri & Govern, 2004; Santrock, 2004)을 고려해 볼 때, 성지식 획득에 있어서도 성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성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별과 학년 등 인구학적 변인을 고려할 수 있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지식이 높다고 보고(최혜숙 외 2인, 2004)되고 있으나, 여고생들의 성지식 정확성이 남고 등학생의 성지식 정확성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김혜원, 이해경, 2000)도 보고되는 등 일관된 연구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별과 성지식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성지식의 성차에 관해 안정된 정보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학년이 높은 학생이 학년이 낮은 학생보다 성지식이 높은 것(김신정 외 1인, 2004; 최혜숙 외 2인, 2004)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성지식에 미치는 성별과 학년의 상대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성지식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의 상대적 효과 탐색은 성지식 교육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인구학적 정보 규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이에 학년에 따른 성지식을 토대로 성별과 학년이 성지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성별과 학년을 성관심 및 성가치관과 연결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성관심과 성가치관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관심과 성가치관에 미치는 성별과 학년의 인구학적 정보는 성관심과 성가치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구성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기초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성지식, 성가치관 및 성관심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성지식, 성가치관 및 성관심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성지식을 설명하는 독립변인(성별, 학년, 성가치관, 성관심)의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과 관련하여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이나 자료개발이 모색되고 있는 시점(교육인적자원부, 2005)에서 이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성지식 교육 효과를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대구경북지역내 중고등학생 남녀 각 2학년생 27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중 남학생은 154(56.6%)명, 여학생은 118(43.4%)명이었으며, 중2학년은 135(49.6%)명, 고2학년은 137(50.4%)명이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신 경우는 각각 8(2.9%)명과 2(0.7%)명, 결측 2(0.7%)명이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안 계신 경우는 없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30대가 7(2.6%)명, 40대가 226(83.1%)명, 50대 30(11.0%)명, 결측 7(3.2%)명이었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30대가 36(13.2%)명, 40대가 212(77.9%)명, 50대가 13(4.8%)명, 결측 9(4.0%)명이었다. 아버지 학력의 경우 중졸 이하가 53(19.5%)명, 고졸이 135(49.6%)명, 대졸 이상이 66(24.3%)명, 결측 18(6.6%)명이었다. 어머니 학력의 경우 중졸 이하가 60(22.1%)명, 고졸이 159(58.5%)명, 대졸 이상이 38(14.0%)명, 결측 15(5.5%)명이었다.

### 2. 연구척도

질문지 조사를 위한 연구도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성지식

성지식 척도는 김현정과 이귀옥(2000)의 측정도구와 안

양숙, 정혜정, 이정숙(1997), 이문희(1993)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작성하였다. 성지식 척도는 '2차 성징은 여자가 남자보다 1-2년 빠르다', '처녀막은 여자의 성관계 경험 유무를 알려준다', '사정은 남성의 요도(오줌길)를 통해 이루어진다', '남자의 고환은 2개다' 등 사춘기의 성적 발달 특성(4문항), '월경기간 중에 성관계를 하면 임신된다', '정자의 수명은 난자의 수명보다 길다', '성관계 후 토끼뽀를 뛰거나 질 세척을 하면 임신을 방지할 수 있다', '월경 중단은 곧 임신을 의미한다', '뱃속의 태아는 엄마의 요도(오줌길)를 통해 밖으로 나온다' 등 임신과 출산 및 피임(5문항) '에이즈는 동성연애자와의 성관계에서만 감염된다', '임신 중 성병에 걸리면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 '성병은 공중 목욕탕, 화장실 등에서도 전염될 수 있다' 등 성병(3문항)을 묻는 문항(총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성된 문항은 산부인과 전문의, 아동학과 가족학 전공 교수 3명에 의해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았다. 성지식 척도는 예/아니오의 응답방식을 취하고 있다. 각 문항은 임신이나 성병 등에 관한 성지식의 정확성을 묻고 있으며, 옳은 응답의 경우 1점, 틀린 응답의 경우 0점 처리 하였다. 응답가능 범위는 0점에서 12점이며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4로 나타났다. 성지식 척도의 평균(표준편차)은 7.06(2.74)이며,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성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 성가치관

성(sexuality)에 대해 가지는 믿음 또는 신념으로 정의되는 성가치관은 민하영과 김경화(2005)가 구성한 성가치관 척도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민하영과 김경화의 성가치관 척도는 성공정성 3문항과 성평등성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성공정성은 성을 금기시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성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의미한다. 성평등성은 가부장적 성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이중적 성가치관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적 측면에서 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의미한다.

'결혼 신청은 남자가 하는 것이 좋다', '피임은 여자가 하는 것이 좋다', '성교육은 여학생에게 더 강조해야 한다',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등 9개 문항으로 구성된 성가치관의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5점)의 5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응답가능 범위는 9점에서 45점이며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3으로 나타났다. 성가치관 척도의 평균(표준편차)은 32.38(6.11)이며,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성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다 많이 인식하며 이중적 성가치관에서 벗어나 성평등적 의식을 보다 많이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 3) 성관심 척도

Hill과 Preston(1996)이 제작한 AMORE(The Affective and Motivational Orientation Related to Erotic Arousal Questionnaire)와 Kalichman과 Rompa(1995)의 성적 자극 추구 척도(Sexual Sensation Seeking Scales) 등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성관심 척도는 '다른 사람의 몸과 성에 대해 호기심이 있다' '성행동이나 성관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친구들과 성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재밌다', '인터넷에서 성과 관련된 기사나 내용을 검색하는 것이 재밌다' 등 성에 대한 관심을 묻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응답가능 범위는 4점에서 20점이며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7로 나타났다. 성관심 척도의 평균(표준편차)은 10.68(3.65)이며,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해 호기심이나 관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3. 조사 절차

대구경북지역내 남녀 중고등학교 각각 1개교 총 4개 학교에서 보건 교사나 담임 교사의 도움을 받아 남녀 중고등학생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질문지의 응답 시간은 20분 정도였으며, 응답 후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다.

##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의 Crosstabs, t 검정, Pearson의 부분상관계수,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유의수준  $\alpha < .05$ 에서 검증하였다.

## III. 연구결과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청소년의 성지식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얻기 위해, 성별과 학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성지식 교육 실태 및 성적 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각각 살펴보았다.

우선 청소년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성지식 교육 실태를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보건 교사 등을 포함한 학교내 교사를 통해 성지식 교육을 대부분 받고 있으나, 남학생은 여학생과 달리 전문 강사나 친구, 책, 잡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도 성지식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48.20, p<.01$ ). 남학생이 학교 내 교사와 같은 공식적 경로 외에 전문 강사나 책, 잡지, 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지식 교육을 경험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

〈표 1〉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성지식 교육 실태

변 인		성지식 교육 원천			성지식 교육 만족				성지식 교육 희망 용(114명)			
구 분	부 모	학교내 교사 (보건교사 /담임)	기타 (전문강사, 책, 잡지, 인터넷)	매우만족	보통만족	만족못함	전혀 만족못함	자 위	임신/피임	성 병	생식기관 /기타	
												성별
	$\chi^2$	48.20***			2.55				3.14			
학년	중2	7(5.2)	107(79.3)	21(15.6)	4(3.3)	71(57.7)	31(25.2)	17(13.8)	7(18.9)	3(8.1)	15(40.5)	12(32.4)
	고2	4(2.9)	89(72.1)	44(23.9)	12(8.8)	90(66.2)	20(14.7)	14(10.3)	14(18.2)	27(35.1)	24(31.2)	12(15.6)
	$\chi^2$	10.60**			8.27				10.92*			

주1) \*\*\* $p < .001$ 

주2) '성지식 교육 희망 내용'의 경우 성지식 교육 희망 내용이 없는 학생(158명)은 응답하지 않음. 이들 학생은 1)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서 48명(30.4%), 2)학생은 성에 대해 많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8명(5%), 3)공연히 호기심만 자극하므로 33명(20.9%), 4)성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없으므로 67명(42.4%), 5)무응답 2명(1.2%)으로 성지식 교육 희망 내용이 없음을 설명함.

〈표 2〉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성적 행동에 대한 태도

변 인		키 스			자 위			성 관 계	
구 분	남 녀	절대안됨	경우에 따라	괜찮다	절대안됨	경우에 따라	괜찮다	절대안됨	경우에 따라
		성별	남 녀	8(5.2) 4(3.4)	77(50.0) 61(51.7)	69(44.8) 53(44.9)	32(20.8) 72(66.0)	66(42.9) 40(33.9)	56(36.4) 6(5.1)
	$\chi^2$	.53			58.34***			22.19***	
학 년	중2	11(8.1)	89(65.9)	35(25.9)	68(50.4)	55(40.7)	12(8.9)	109(84.5)	20(15.5)
	고2	1(0.7)	49(35.8)	87(63.5)	36(26.3)	51(37.2)	50(36.5)	97(71.3)	39(28.7)
	$\chi^2$	42.08***			33.28***			6.64*	

주1) \*\* $p < .01$ , \*\*\* $p < .001$ 주2) '성관계'의 경우 성별, 학년 모두에서 '괜찮다' 항목의 사례수가 5이하로 나타나 카이 검정시 이를 각각 제외하고 분석함. 자세한 내용은 안광호, 임병호(2004)의  $\chi^2$  검정 조건(182쪽)을 참조할 것.

부분의 여학생은 공식적 통로라 할 수 있는 학교 내 교사를 통해서 성지식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지식 교육 원천의 학년간 차이를 살펴보면, 중2학생과 고2학생 모두 보건 교사에 의해 성지식 교육을 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2학생은 전문 강사나 잡지, 인터넷에 의한 성지식 교육 경험이 중2학생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10.60$ ,  $p < .001$ ). 이는 학년 진학 및 진급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교육 기회가 많고 다양한 매체를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성지식 교육에 대한 만족에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2학생과 고2학생간에 나타났었다. 성지식 교육에서 알고 싶은 내용에 있어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 없이 대부분 성병에 대해 알고 싶어했다. 이러한 사실은 에이즈 및 성병에 대한 성교육 요구도가 중학생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최혜숙 외 2인, 2004)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2학생과 고2학생간에는 성지식 교육에서 알고 싶어 하는 내용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10.92$ ,  $p < .05$ ). 성지식 교육 희망 내용이

없는 학생들은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고2학생은 성관계를 전제로 한 성병이나 임신/피임에 대해 약 70% 정도의 학생이 알고 싶어한 반면 중2학생은 임신/피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상태에서 40% 정도의 학생이 성병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한편 중2학생과 고2학생 모두 자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싶어 했으나 우선 순위에서 중2학생과 고2학생 사이에 차이를 보였다. 중2학생은 성병다음에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자위에 관한 내용이었으나 고2학생은 임신/피임, 성병 다음으로 자위에 대해 알고 싶어했다. 중2학생이 고2학생에 비해 자위에 대해 보다 우선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것은 14세인 중1, 2 시기에 자위를 처음 시작한다는 사실(김현실, 2001)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성적 행동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중고등학생의 경우 키스에 관한 한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 없이 '경우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그러나 중2학생과 고2학생간에는 키스에 관한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42.08$ ,  $p < .001$ ). 중2학생의 경우 '절대 안된다'가 8.1%를 차지한 반면 고2학생은 0.7%만이 '절대 안된다'

라고 응답했다. 절반 이상의 중2학생(66%)은 '경우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괜찮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25.9%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고2학생 63.5%는 이성간 키스에 관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 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36.4%를 차지했다. 이러한 사실은 중2학생에 비해 고2학생이 키스와 같은 가벼운 성적 행위에 대해 보다 허용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자위와 관련하여 남녀 학생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chi^2=58.34, p<.001$ ). 남학생 대부분은 '경우에 따라 할 수 있다'하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 대부분은 '절대 안된다'라고 응답했다. 자위를 '괜찮다'라고 응답한 남학생은 36.4%에 비해 여학생은 5.1%만이 '괜찮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자위와 관련하여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매우 허용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자위와 관련하여 학년차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chi^2=33.28, p<.001$ ). 중2학생의 경우 약 50% 정도의 학생이 자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약 50% 정도의 학생이 자위에 대해 수용적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고2학생은 26%만이 자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74%이상이 자위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계의 경우 남녀 학생 모두 '절대 안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7%이상을 나타냈으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관계에 대해 좀 더 허용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22.19, p<.001$ ). 이는 성적 행동에 대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보다 완고하며 허용적이지 않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박희성, 이진숙, 박초아, 정민자, 1995; DeGaston, Weed, & Jesen, 1996)와 일치하는 것이다. 중2학생과 고2학생 모두 70%이상이 '절대 안된다'라고 응답하고 있지만, 고2학생이 중2학생에 비해 좀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chi^2=6.64, p<.05$ ). 그러나 가벼운 성적행동인 키스에 대한 태도와 달리 성관계에 대해서는 학년 구분없이 대부분의 남녀학생들이 보수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1)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성지식, 성가치관, 성관심 차이**

중고등학생의 성지식이 성가치관 및 성관심과 더불어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t 검증 결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지식, 성가치관, 성관심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남학생의 성지식은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t=3.89, p<.001$ ), 성관심( $t=5.59, p<.001$ ) 역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성가치관 측면에서 보다 성공정적이고 성평등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 $t=5.87, p<.001$ )으로 나타났다.

고2학생의 성지식은 중2학생의 성지식보다 높았으며( $t=-$

<표 3>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성지식, 성가치관, 성관심

변인	변인구분	성 지 식	성가치관	성 관 심
성별	남학생(154)	7.62(2.64)	34.15(6.23)	11.71(3.78)
	여학생(118)	6.33(2.70)	30.09(5.13)	9.38(3.03)
	t값	3.89***	5.87***	5.59***
학년	중2(135)	6.00(2.79)	31.23(5.99)	9.65(3.56)
	고2(137)	8.11(2.25)	33.51(6.04)	11.70(3.47)
	t값	-6.74***	-3.12**	-4.80***

주1) \*\*p<.01, \*\*\*p<.001

6.74, p<.001) 성공정적, 성평등적 가치가 높게 나타났다( $t=-3.12, p<.001$ ). 뿐만 아니라 중2학생에 비해 보다 높은 성관심을 갖고 있는 것( $t=-4.80, p<.001$ )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성지식, 성가치관, 성관심간 상관관계**

중고등학생의 성지식, 성가치관, 성관심에서 성차와 학년차가 나타난(연구문제 1)의 결과를 고려하여, 성별과 학년을 각각 통제된 후 성지식, 성가치관, 성관심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남녀학생별 학년을 각각 통제한 후, 성지식, 성가치관, 성관심간 부분상관관계를 남녀 학생별로 산출하였다.

중고등학생의 성지식, 성가치관, 성관심은 성별과 학년을 각각 통제했을 때, 성지식은 성관심과 유의한 상관관계(학년 통제시 남학생  $r=.302, p<.001$ , 학년 통제시 여학생  $r=.431, p<.001$ )를 나타내고 있으나, 성지식과 성가치관의 관계는 학년 통제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성지식은 성가치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으나, 여학생은 성지식과 성가치관 사이에 정적인 유의한 상관관계( $r=.276, p<.001$ )를 나타냈다. 이는 남학생의 성지식이 성가치관에 의해 영향받지 않지만, 여학생의 성지식은 성공정적이고 성평등적인 가치 정도에 영향받을 수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성관심과 성가치관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성에 대한 관심과 성가치 형성은 관계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4> 성별, 학년 통제시 청소년의 성지식, 성가치관, 성관심간 부분상관관계

변인	남 학 생			여 학 생		
	성지식	성가치관	성관심	성지식	성가치관	성관심
성 지 식	1			1		
성가치관	.081 n=140	1		.276** n=112	1	
성 관 심	.302*** n=140	-.086 n=140	1	.431*** n=112	.156 n=112	1

주1) \*\*\*p<.001

〈표 5〉 청소년의 성지식에 대한 성별, 학년, 성가치, 성관심의  
위계적 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성 지 식			F값(df)	R <sup>2</sup>	ΔR <sup>2</sup>
		B	Std. Error	β			
1회	상 수	6.33	.25	.23***	14.28(1,256)***	.05	
	성 별	1.27	.34				
2회	상 수	5.07	.28	.27***	36.38(2,255)***	.22	.17
	성 별	1.49	.31				
	학 년	2.27	.31				
3회	상 수	6.81	.74	.22***	26.94(3,254)***	.24	.02
	성 별	1.21	.32				
	학 년	2.09	.31				
	성가치	.07	.03				
4회	상 수	4.68	.78	.10	32.54(4,253)***	.34	.10
	성 별	.53	.32				
	학 년	1.48	.31				
	성가치	.07	.03				
	성관심	2.66	.04	.35***			

주1) \*\*\*p<.001

주2) 성별: 여학생=0 남학생=1, 학년: 중학생=0, 고등학생=1로 더미변수화 하였음.

####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성지식에 대한 성별, 학년, 성가치관, 성관심의 상대적 설명력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를 토대로 청소년의 성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학년, 성가치관, 성관심의 상대적 영향력을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5〉의 1, 2 단계에서 나타나 듯 청소년의 성지식은 성별과 학년에 의해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단계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처럼, 청소년의 성지식에 대한 성별과 학년의 효과는 성가치관을 통제했을 때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4단계에서 성별의 영향력은 성관심을 통제한 경우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성지식에 관한 성별의 영향은 성관심에 의해 매개되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지식 차이는 성에 대한 차이라기 보다 성관심에 따른 남녀 차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성지식은 학년( $\beta=.27, p<.001$ )이나 성가치관( $\beta=.15, p<.001$ ) 보다 성관심( $\beta=.35, p<.001$ )에 의해 보다 많이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의 영향은 성가치관의 영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성지식에 있어 성관심이 중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 IV. 결론 및 논의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성교육이 학년별 매년 10시간 내외 실시되고 성교육 교사용 홈페이지(www.edugender.or.kr)

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되는 등 학교 현장에 기반한 청소년 성교육이 확산되고 있는 요즘, 청소년의 성지식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272명의 대구경북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지식, 성가치관 및 성관심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성지식, 성가치관 및 성관심의 차이, 성지식, 성가치관, 성관심간 상관관계, 그리고 청소년의 성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한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논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성지식과 성가치관 및 성관심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남학생의 성지식이 여학생보다 높으며, 남학생의 성가치관이 여학생의 성가치관보다 성공정적이고 성평등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남학생의 성관심은 여학생의 성관심보다 높다 할 수 있다. 남학생의 성지식이 여학생보다 높다는 사실은 성지식 정확성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다고 보고한 김혜원과 이혜경(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월경, 사정, 임신 과정, 출산, 에이즈 등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영희, 1993; 정은경, 1992)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공정적, 성평등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완고하고 허용적이지 않은 성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박희성 외 3인, 1995; 안양숙 외 2인, 1997; 전경숙 외 2인, 2004; Crawford & Popp, 2003; DeGaston, Weed, & Jensen, 1996; Milhausen & Herold, 1999)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관심이 높다는 사실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적인 추구에 더 관심이 있다는 선행 연구(윤가현, 2001; Allgeier & Allgeier, 1991; Baldwin & Baldwin, 1997; Gaither, Sellbom, & Meier, 2003; Hill & Preston, 1996)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성지식, 성가치관, 성관심은 학년에 따라서도 유의하게 차이를 보인다.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성지식이 많으며, 성관심도 높으며 성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며 평등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성지식이 높고 성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며 평등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학교 교육을 통한 성교육 경험이 중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성관심이 높게 나타난 것은 고등학생의 생물학적 성적 발달이 중학생보다 성숙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성별과 학년에 따라 성지식, 성가치관 및 성관심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청소년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성별과 학년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지식이나 성

관심 또는 성가치관이 서로 다른 수준에 있음을 고려할 때, 남녀학생을 통합한 성교육 프로그램 외에 남학생 또는 여학생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미국의 대표적 성교육 기관인 SEICUS(2004)에서 제공되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7학년에서 12학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3단계 학년별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성교육을 위해 마련된 현행 중등용 성교육 프로그램도 학년적 특성을 고려해 좀 더 세분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별과 학년을 통제했을 때, 청소년의 성지식은 성관심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청소년의 성지식은 성관심 정도에 의해 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관심이 성적 상상이나 자위 행위 또는 키스나 애무, 성관계 등의 성적 행동을 매개하는 변인임(Hill & Preston, 1996)을 고려할 때 성관심은 성적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인 임신, 출산, 성병 등에 대해 정확히 알려는 노력을 갖게 한다고 볼 수 있다. 관심이거나 흥미가 자발적 동기 요인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반추해 볼 때, 성에 대해 지니는 청소년의 적절하고 자연스런 성관심은 올바른 성을 탐색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청소년 스스로 정확한 성지식을 탐색하도록 하는 동인으로 성관심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성교육은 교사나 전문 강사 또는 부모에 의해 주어지는 일방적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성별과 학년에 관계없이 성지식 획득에 중요 요소임을 고려해 볼 때, 성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식 전달 위주의 일방적 성지식 교육에서 탈피해 청소년의 자연스런 성관심에 기초한 탐색적 성지식 교육이 모색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남학생의 경우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성지식은 성가치관에 의해 영향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성가치관에 따라 성지식에 차이를 나타냈다. 즉 성에 대해 보다 성공정적일 때 그리고 성평등적일 때 좀 더 많은 성지식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학생의 성지식이 성가치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은 성에 대한 지식과 바람직한 성에 대한 태도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신정, 양순옥, 2004; 이길자, 정은자, 2001; 전경숙 등, 2004)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성지식에 미치는 성가치관의 영향이 이처럼 학년 구분없이 남녀 학생간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은 성지식 교육의 효과 진작 시, 남녀 학생에게 방법론적 차이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성지식은 성별, 학년, 성가치관, 그리고 성관심에 의해 영향받는 가운데 성관심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고 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성공정적, 성평등적 가치관이 클수록 그리고 성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성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성관심은 성별, 학년, 성가치관보다 성지식에 보다 많이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성지식에 미치는 성별 효과를 중재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청소년의 성지식 교육에 있어 성별, 학년, 성가치관, 그리고 성관심을 고려한 다원화된 성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될 수 있음을 제안함과 더불어 성지식 교육에 청소년의 성관심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방법이 보다 많이 모색되어야 함을 분명히 제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성교육 관련 연구에서 특히 성지식 교육 관련 연구에서 청소년의 성관심을 반영하거나 고려한 것은 전혀 없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났듯, 청소년의 성지식은 성에 대해 지니는 관심이거나 흥미에 의해 영향받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호기심이나 궁금증 또는 흥미나 관심이 학습의 중요 동기 요인임(조연순 등 2004)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성관심을 인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모색은 청소년의 성지식 교육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청소년의 성적 관심을 인정하는데서 성교육은 출발해야 한다고 했을 때 청소년의 뛰는 호기심, 기는 성교육이 아니라 청소년의 뛰는 호기심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성지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지역 272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연구대상의 지역적 한계로 인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요구되는 연구의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나 성지식 교육에서 성관심의 중요성을 규명하고 성관심을 활용한 새로운 성지식 교육 프로그램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5). 학교 성교육 활성화 지도지침. www.moe.go.kr
- 교육인적자원부(2005). 성교육 교사용 홈페이지. www.edugender.or.kr
- 김신정, 문인옥(2004). 시청각 및 토론 중심의 성교육 프로그램이 일부 중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대한보건연구*, 30(1), 85-95.
- 김수경(2005). 성에 대한 태도, 신체만족도가 신체 노출 의복의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05-114.
- 김신정, 양순옥(2004). 중학생의 성 지식과 성 태도. *아동간호학회지*, 10(3), 350-360.



- 김영희(1993). 청소년의 성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실(2001). 청소년 자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정신간호학회지*, 10(2), 137-147.
- 김현정, 이귀옥(2000). 남녀 청소년의 성지식 차이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7(2), 161-181.
- 김혜원, 이해경(2000). 청소년들을 위한 양성평등 성교육 방향의 모색: 남녀 고등학생들의 성의식과 성행동 실태에 근거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2), 29-45.
- 동아일보(2005). 광복 60년 문화키워드로 본 1945-2005년. 2005. 8. 10. A8면.
- 민하영, 김정화(2005).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성가치관. *아동학회지*, 26(6), 59-71.
- 박효미, 임미영(2003). 멀티미디어 성교육 프로그램이 남자 중학생의 성 태도와 성 지식에 미치는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9(2), 173-179.
- 박희성, 이진숙, 박초아, 정민자(1995). 미혼남녀의 성행동실태와 혼전 성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33(6), 11-23.
- 송정아, 최혜영(1999). 청소년기 성교육 프로그램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4(1), 39-59.
- 안광호, 임병호(2004). SPSS를 활용한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 서울: 학현사
- 안양숙, 정혜정, 이정숙(1997). 남녀대학생의 성지식과 태도,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15, 137-154.
- 윤가현(2001). *성 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 이길자, 정은자(2001). 성교육 프로그램이 올바른 성지식과 긍정적인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 남자 중학생을 중심으로-. *정신간호학회지*, 10(3), 276-289.
- 이문희(1993). 도시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문제와 성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숙, 이효영, 이선자(2004). 대학생의 성지식, 태도, 행동실태 및 성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 21(1), 45-68.
- 정금희, 김신정, 양순옥(2003). 성교육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성 지식과 성 태도에 미치는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9(4), 420-431.
- 정은경(1992). 청소년의 성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연순, 체계숙, 백은주, 임현화(2004). 초등학교 수업을 위한 문제중심학습(PBL)의 교수학습 과정 모형 연구. *교육방법연구*, 16(2), 1-28.
- 최혜숙, 강순자, 여성희(2004). 중학교 과학교과서 성교육 관련 내용 분석과 중학생의 성지식 수준 및 요구도 조사 연구. *한국생활교육학회지*, 32(3), 236-246.
- Allgeier, E., & Allgeier, A. (1991). *Sexual interactions* (3rd Eds.) Lexington, Massachusetts: D. C. Heath & Co.
- Baldwin, S., & Baranoski, M. V. (1990). Family interactions and sex education in the home. *Adolescence*, 25, 573-582.
- Crawford, M., & Popp, D. (2003). Sexual double standards: A review and methodological critique of two decades of research. *The J. of Sex Research*, 40(1), 13-17.
- DeGaston, J. F., Weed, S., & Jensen, L. (1996). Understanding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sexuality. *Adolescence*, 31, 217-231.
- Gaither, G. A., Sellbom, M., & Meier, B. P. (2003). The effect of stimulus content on volunteering for sexual interest research amo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40(3), 240-248.
- Hill, C. A., & Preston, L. K. (1996). Individual difference in the experience of sexual motivation: Theory and measurement of dispositional sexual motive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3(1), 240-248.
- Kalichman, S. C., & Rompa, D. (1995). Sexual sensation seeking and compulsivity scales: Reliability, validity, and predicting HIV risk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5, 586-601.
- Kelly, P., Morgan-Kidd, J., Champion, J. D., & Wood, R. (2003). Sexuality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of young women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Pediatric Nursing*, 29(4), 271-277.
- Milhausen, R. R., & Herold, E. S. (1999). Does the sexual double standard still exist?: Perceptions of university women. *The J. of Sex Research*, 36(4), 361-368.
- Petri, H. L., & Govern, J. M. (2004). *Motiv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5th. Eds.). Belmont, CA.:Wadsworth.
- Santrock, J. W. (2004). *Child development*(10th ed.). NY: McGraw Hill.
- Sex Information and Education Council of United States (SIECUS, 2004). Guidelines for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K-12(3rd.). www.siecus.org

(2005년 10월 29일 접수, 2006년 1월 18일 채택)